

# 인터넷취업알선사이트 '잡월드USA 닷 컴' 뜬다


인터넷취업알선사이트 '잡월드 USA' (www.jobworldusa.com)가 고학력 구인 구직 시장의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. 18일 현재 이 사이트에 등록된 구인업체는 모두 56개. 미주내 동포기업과 한국 지상사, 미국 기업 등이다. 모집 직종은 일반 사무직에

서 치과 보조의, 웹 디자이너까지로 다양하다. 구인업체 대다수가 영어로 모집요강을 게재, 영어에 능통한 고학력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.

지역도 다양하다.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주 소재 기업 등의 채용 현황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.

이용 희망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입은 무료이다.

정혜순 기자

 **중앙일보**

2005년 3월19일 토요일